

" 30주년 기념 : 젊은 정보보호인 30인 특집 "

특집호 발간에 즈음하여

지난 2020년은 다사다난하면서도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정보보호학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학술행사 기획 및 개최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였지만,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와 그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우리 정보보호인이 지향해야 할 점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2020년은 한국정보보호학회가 1990년도에 설립되어 어느덧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0년 정보보안 분야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기에, 정보보호학회 창립 30주년은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어느덧 40여 개의 대학에서 정보보호관련 학과 및 대학원이 개설되어 지속적인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지게 되었으며, 2020년 국내 보안시장 규모는 6조원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기로에 있어, 한국정보보호학회는 30년이 1세대라는 의미에 걸맞게 '뉴 노멀시대, 향후 30년을 이끌고 갈 젊은 정보보호인과의 약속'이라는 아젠다로 미래 한국 정보보호 분야 리더들의 활약을 북돋고자 '젊은 정보보호 30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특집호에서는 2020년 젊은 정보보호인에 선발된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제 및 성과를 소개하는 특집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정보보호인에 선발된 30인 전원의 연구주제 및 성과를 다룰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있겠지만, 특집호가 수용할 수 있는 논문 수에 제약이 있어 모든 연구자의 논문을 담지는 못하였지만, 소프트웨어보안, 양자암호, AI보안, 클라우드보안, 개인정보보호, 부채널공격, 정보보호 역량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 동향을 살피고, 젊은 정보보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계획 등을 다루도록 하여, 본 특집호는 독자와 젊은 정보보호인 간의 교량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원고를 집필해 주신 젊은 정보보호인들과 편집에 수고해 주신 학회지 편집 위원회, 그리고 학회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지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2021년 4월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박기웅**